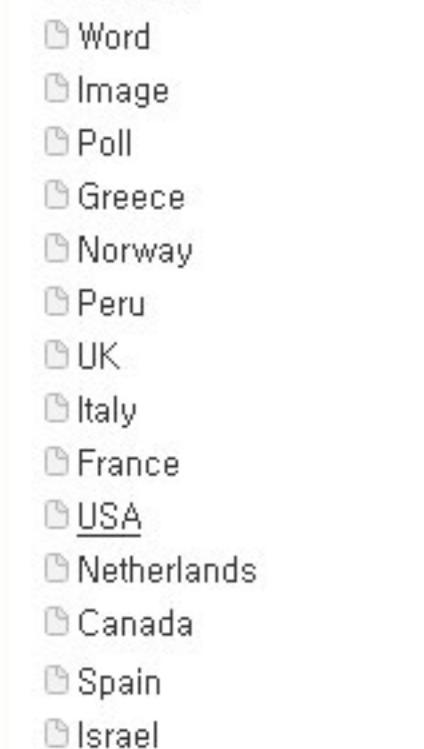


프로로그 | 블로그 | 포토로그



chedragon

프로필 > 이웃추가 >

카테고리

전체보기 (376)

Review List

CD List

Word

Image

Poll

Greece

Norway

Peru

UK

Italy

France

USA

Netherlands

Canada

Spain

Israel

Sweden

Mexico

Venezuela

Brazil

Belgium

Germany

Poland

Swiss

Hungary

Chile

Cuba

Russia

Indonesia

Thailand

Multi Nations

Rock Metal

Tribute Bands

Jazz Rock Fusion

Classical Music

David Bowie

Queen

포토로그

▶ 그 최근 | 연기

davidbowie , prog , yes

, queen , 시디목록 , 음악,

jethrotull , leorme ,

Pendragon , IO ,

gentlegiant , Anglagard ,

LoreenaMcKennitt , PFM ,

Poll

▶ 모두보기

< 2010.5.10 > 월별보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검색

최근댓글

▪ Minimum Vt..

▪ Russian Pro..

▪ Devil Doll ..

▪ Transaltant..

▪ Queen - Made In Heaven

다녀간 블로그

▪ jjwoo2003님의 블..

▪ paintbox

▪ antwark님의 블로그

▪ kwakyojuung님의 블..

▪ S.O.S

이웃 블로그

▪ 이웃그룹

TODAY 130 TOTAL 396761

활동정보

블로그 이웃 82 명

글 보내기 0 회

포스트 스크랩 225 회

사용증인 아이템 보기

RSS 2.0 | RSS 1.0 | ATOM 0.3

POWERED BY NAVER BLOG

USA (24) 목록열기 »

Copernicus – Nothing Exists | USA

2010/05/03 02:53

http://blog.naver.com/chedragon/50087636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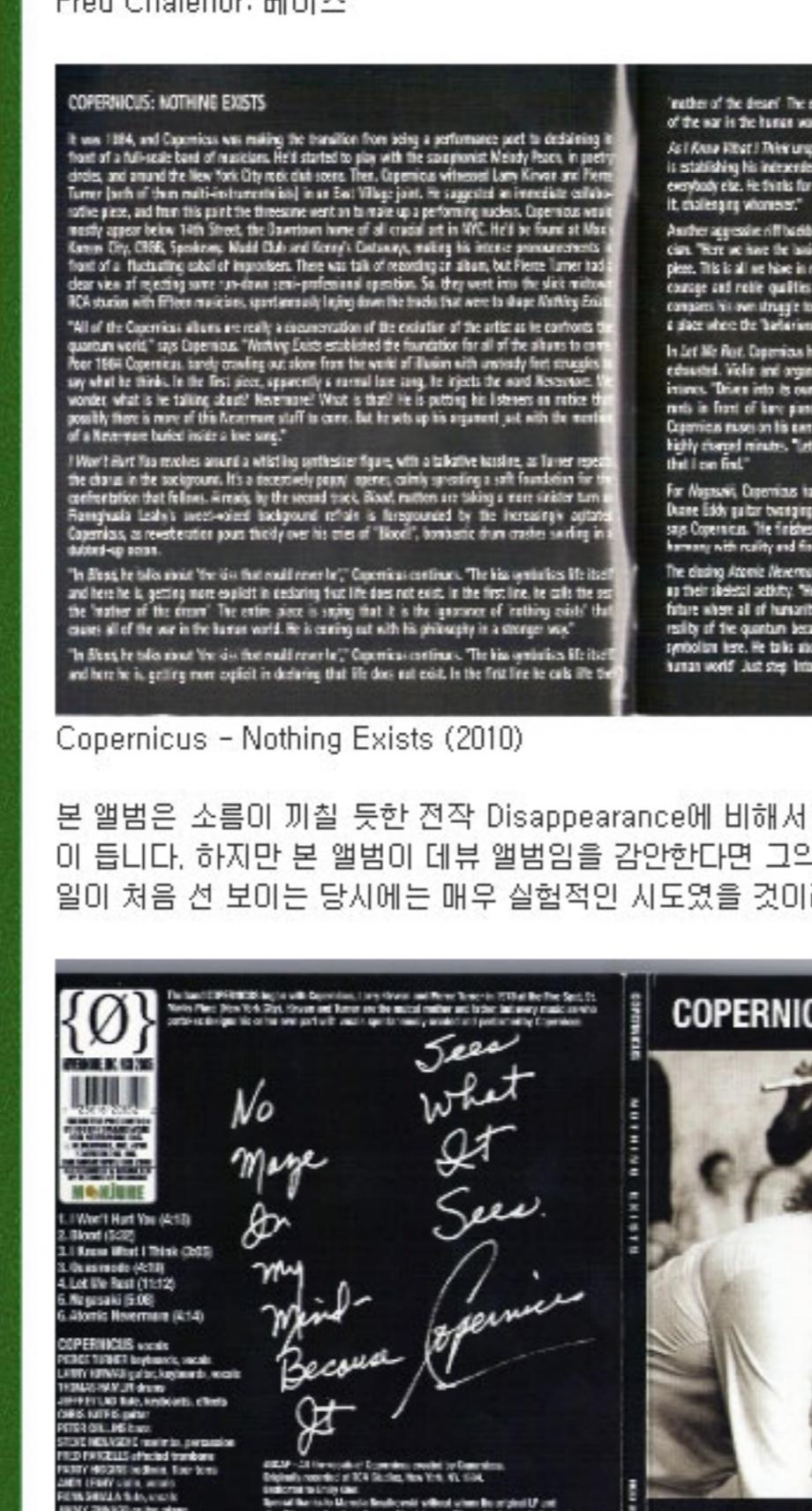
Copernicus의 신보 Nothing Exists에 대한 리뷰입니다. 본 앨범은 시디로 2010년 처음 선보이지만 1985년 발매된 그의 대표 앨범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개했던 2009년 작품인 Disappearance에 이어서 문준 레이디에서 선보이는 코페르니쿠스의 두 번째 앨범으로 1984년 뉴욕의 RCA Studios에서 녹음된 오리지널 음원을 디지털 리마สเต링해서 가져온 것 입니다.



Copernicus

Copernicus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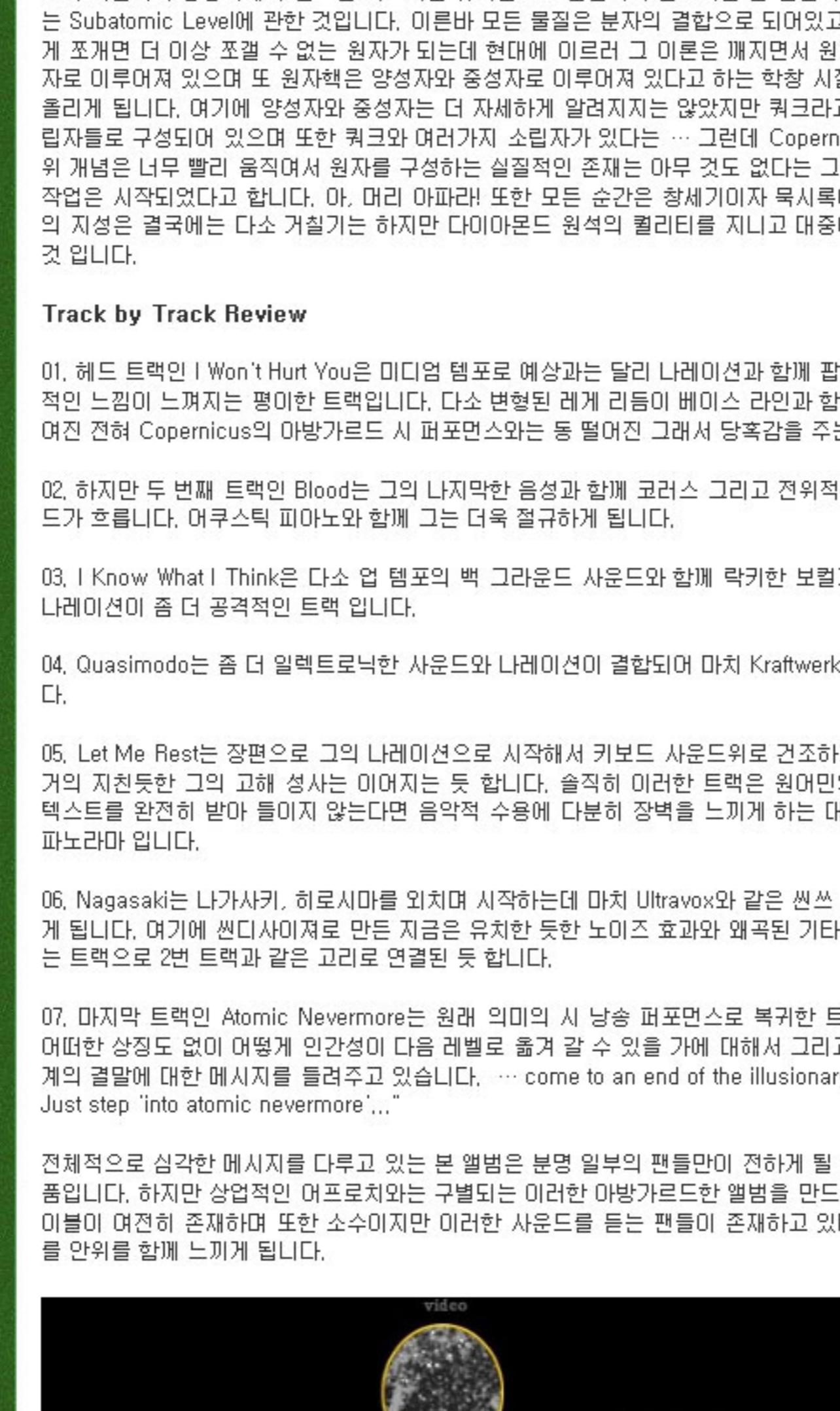
Joseph Smalkowski가 본명인 그는 이미 13매의 앨범을 발표하고 철학과 문학 그리고 음악이 혼합된 종합 예술적인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인정해 놓았던 데뷔 앨범인 Nothing Exists에 이어서 문준 레이디에서 선보이는 코페르니쿠스의 두 번째 앨범으로 1984년 뉴욕의 RCA Studios에서 녹음된 오리지널 음원을 디지털 리마스터링해서 가져온 것 입니다.



Copernicus – Nothing Exists (2010)

Track List

1. I Won't Hurt You (4:13)
2. Blood (5:32)
3. I Know What I Think (3:05)
4. Quasimodo (4:19)
5. Let Me Rest (11:12)
6. Nagasaki (5:08)
7. Atomic Nevermore (4:14)



Copernicus – Nothing Exists (2010)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

본 앨범은 소리를 깨끗한 전작 Disappearance에 비해서 활기 있는 면에서는 강도가 절 한동안 느낌이 듦니다. 하지만 본 앨범이 대체로 활기 있는 면에서는 이미 음악이라는 장르를 초월해서 새롭게 철학적인 면으로 보여집니다.